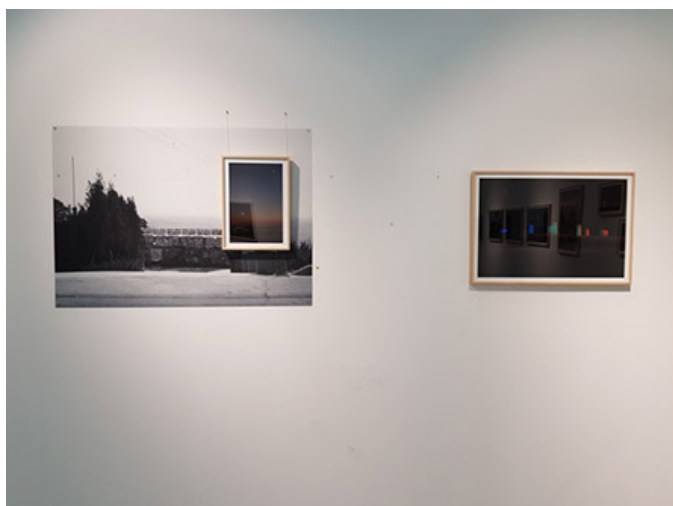


[illegible]

111

5/5/2019

11

[illegible]

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illegible]

02 000000000 000

00 00: 00000000 0,0 000
00 00: 2018.04.17 - 04.23
00/ 00: 0000000000

00000 0 000

000000 400 00 000 00 000 00 000 000. 0000 00 000 00 0 000, 000
000 000000 00 00 00 00 000 00000 00. 000 00000 0 000 00 000000
00000 00 00.

000000 000000 00000 000 000, 0 000 00 0000 0000 0000 00. 000 0
000 000 000.

188000 000 000 00 000 0000 000(0000)00 00 000 189200 00 0000
0(0000)000 00 000 00.

“0 00 0000 00 0 40 00 00 0 0 00000 00 00 000 00 00 00. 00 0 00
00 0000 0000 00 00 000 00.”



19세기 후반 제물포에서 바라본 월미도 동북쪽 촌락

000 0 0000 00 000 00 0 000, 000 00 000 00 000 000 00000 0000 0

사슴은 사슴의 사슴 사슴 사슴.
사슴은 사슴. 사슴은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일제강점기 월미도 공원의 사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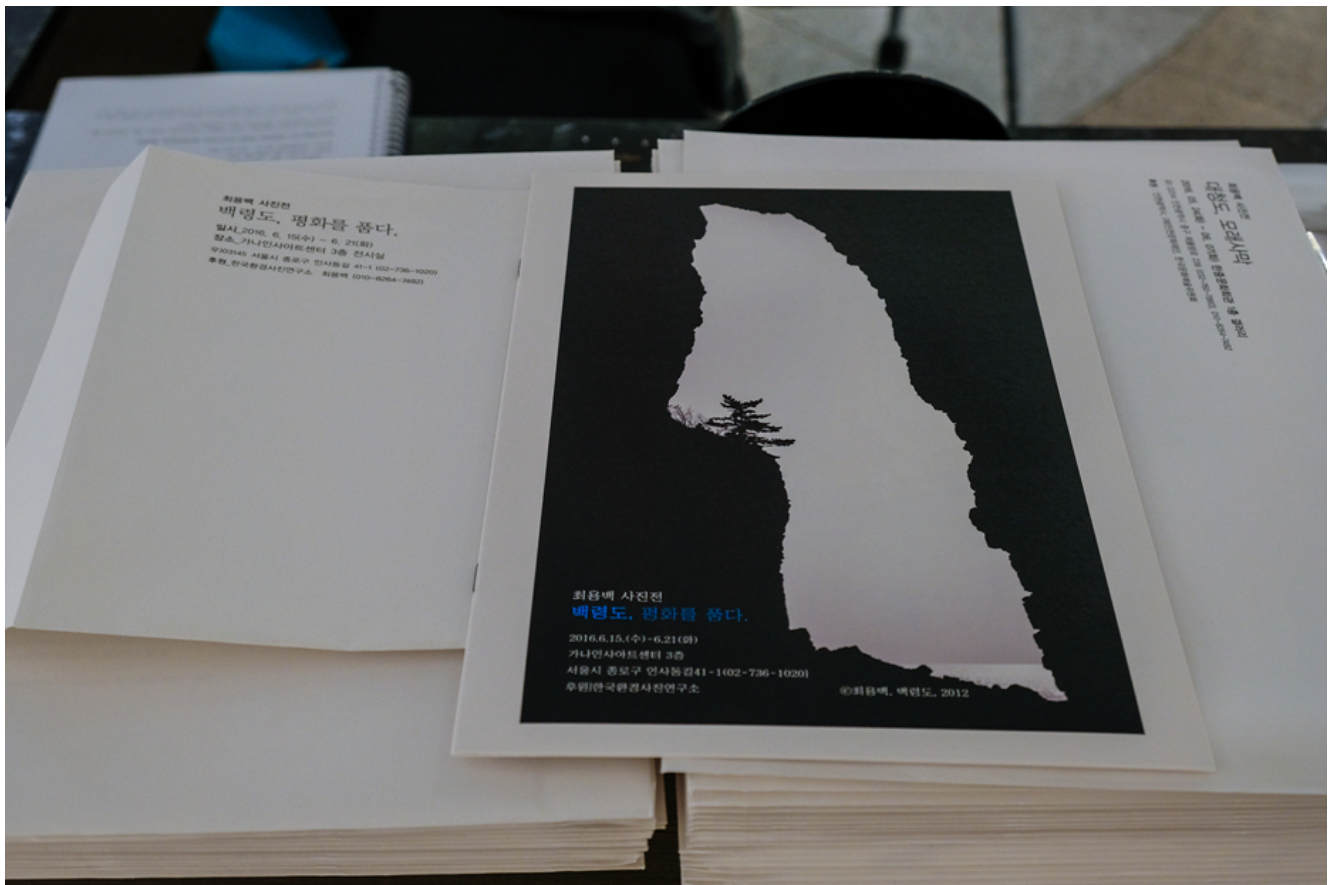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1 / 1 (월미도공원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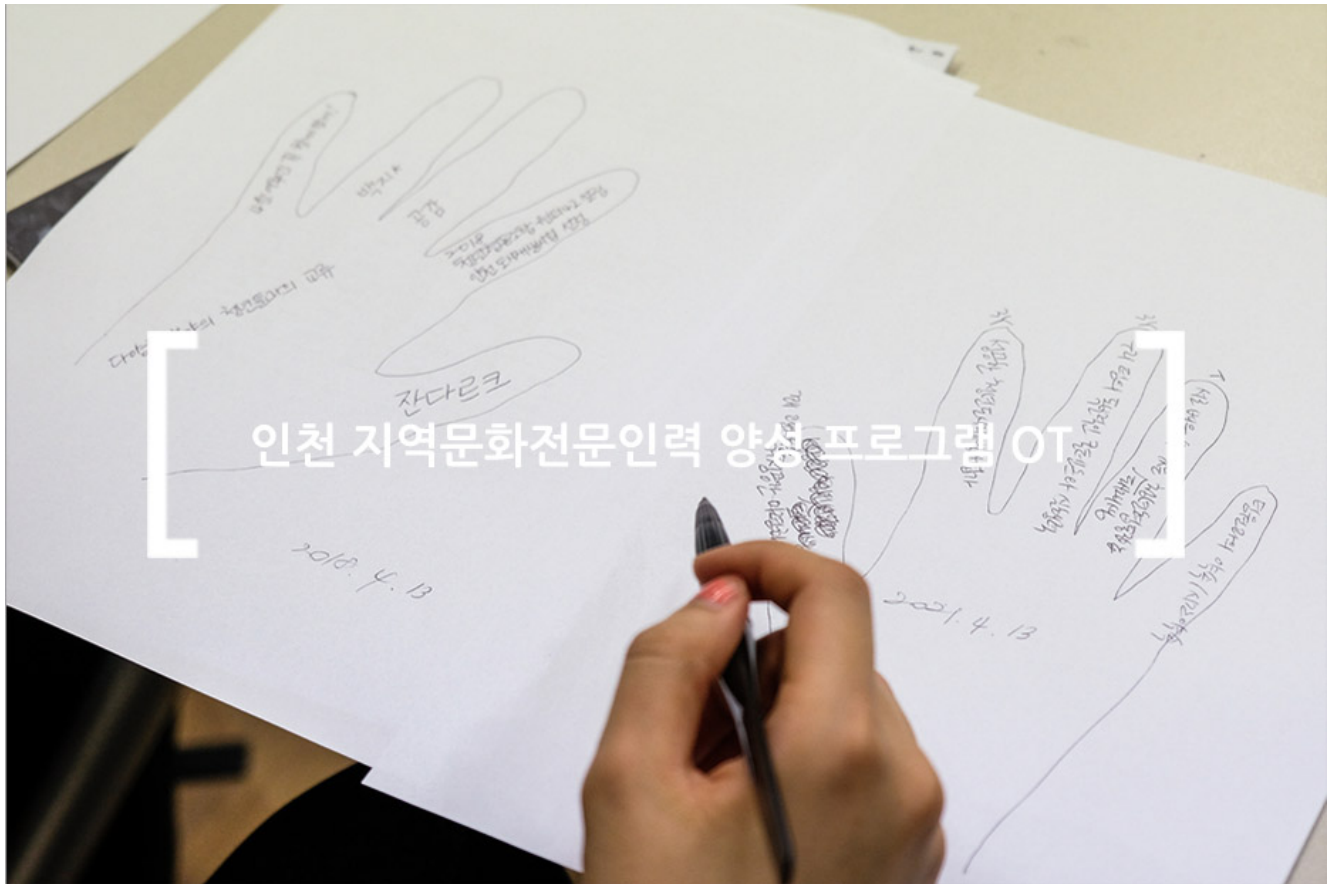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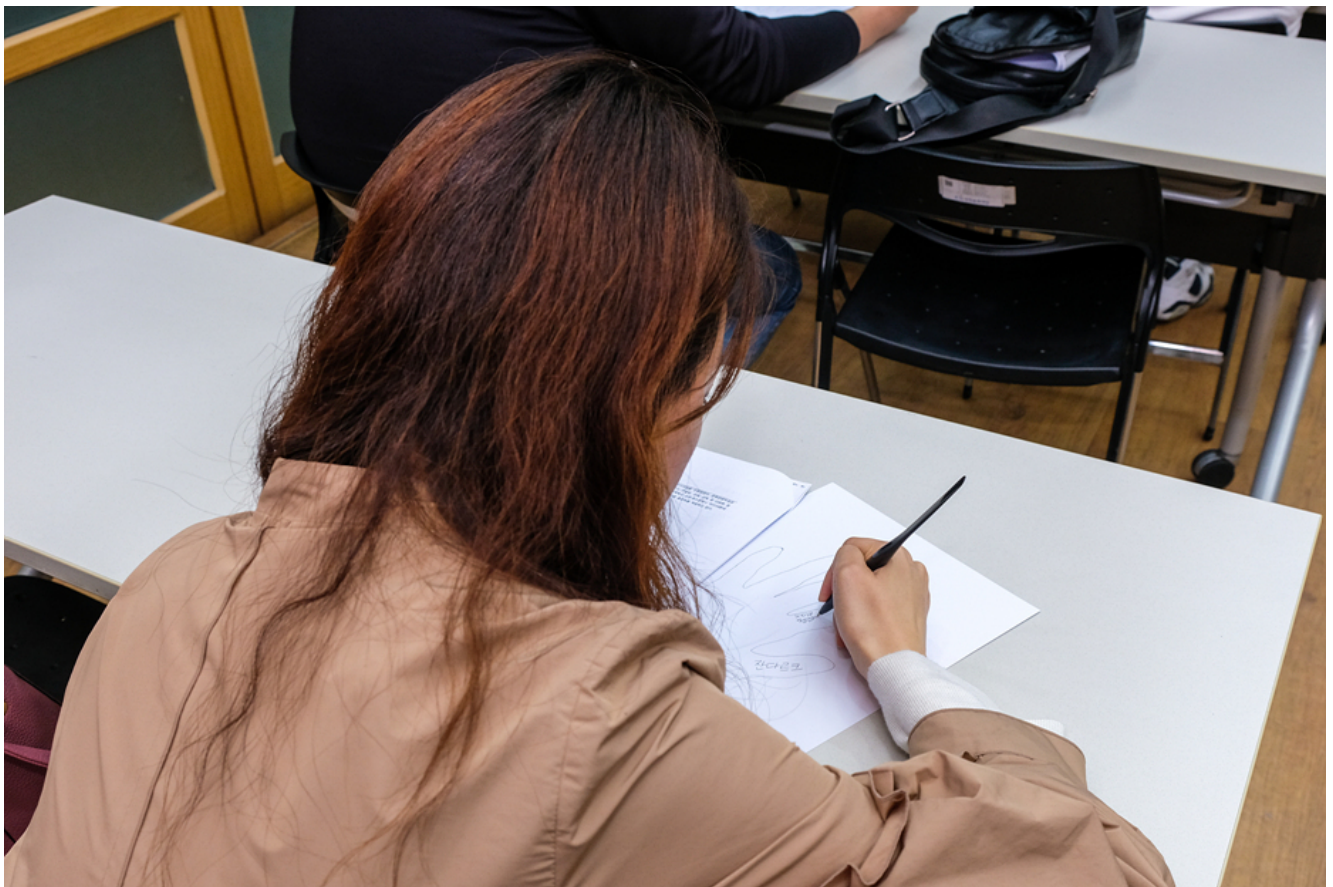
* 0000 0000 0000 00 00 0 00000.

00: 2018.04.14(0)-04.26(0)
00: 000000 000(000000 00 00000238)
00: 000000, 00000000000, (0)0000000

00: 00000003.0 000

00 00000000000 00 00000 0T











* 000 000 000 00 00 0 0000.

00: 2018. 04.13(0), 0060~90

00: 000000 000000 H0 20

00/00: 000000 000000

00: 0000003.0 000

‘0000000000’ 00000 <0>

00000 0000 000 00 000 ‘00000000’

‘000000000’0 2800 0000 ‘0’



지난 4월 7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 열렸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2018년 4월 7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 열렸다. '기차길옆작은학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의 초등학교이다.

28번째 정기공연 '집'은 '집'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자신의 집을 그려보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신의 집을 생각하고, 그 집을 표현하는 기회를 주고, 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기회를 준다.

이번 정기공연 '집'은 4월 7일 토요일 2시, 6시, 8일 일요일 2시에 열린다. 문의, 예매 032-766-1969, <http://gichagil.kr>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좌), 기차길옆작은학교(우)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 김내성, 『청춘극장』
2018.4.11.
김현주(한양대 교수)

청춘의 전설?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 김내성, 『청춘극장』’은 2018년 4월 11일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양대 교내에서 열린다. 입장료는 무료다. 문의: 02-2220-0000



<청춘, 그 시절>, <'청춘' 그 시절>, <그 '청춘' 시절>, <청춘 그
 시절.>이 40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청춘 시절의 추억과
 그 시절의 사람, 그 시절의 이야기, 그 시절의 풍경, 그
 시절의 감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청춘 시절의 추억과
 그 시절의 사람, 그 시절의 이야기, 그 시절의 풍경, 그
 시절의 감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청춘 시절의 추억과
 그 시절의 사람, 그 시절의 이야기, 그 시절의 풍경, 그
 시절의 감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청춘 시절의 추억과 그 시절의 사람, 그 시절의 이야기, 그
 시절의 풍경, 그 시절의 감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청춘
 시절의 추억과 그 시절의 사람, 그 시절의 이야기, 그
 시절의 풍경, 그 시절의 감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청춘
 시절의 추억과 그 시절의 사람, 그 시절의 이야기, 그
 시절의 풍경, 그 시절의 감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이 책은 청춘 시절의 추억과 그 시절의 사람, 그 시절의
 이야기, 그 시절의 풍경, 그 시절의 감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청춘 시절의 추억과 그 시절의 사람, 그
 시절의 이야기, 그 시절의 풍경, 그 시절의 감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minimalist stage set. The set includes a white chair with a bag on the left, a low white table, a floor lamp, two white chairs, a white bench, and a dark wooden chair with a floor lamp in the foreground. A circular spotlight illuminates the floor.

[illegible]



사진 출처: 극단 작은 방 인스타그램(box_room)

이 사진은 극단 작은 방의 공연 중 한 장이다. 이 공연은 4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연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배우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 공연은 현재 서울에서 상연 중이며, 많은 관객들이 관람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모든 것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어둡고, 실내의 조명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3월 3일은 특별한 날이다. 봄의 시작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다. 모든 것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어둡고, 실내의 조명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3월 3일은 특별한 날이다. 봄의 시작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다.

모든 것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어둡고, 실내의 조명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3월 3일은 특별한 날이다. 봄의 시작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다. 모든 것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어둡고, 실내의 조명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3월 3일은 특별한 날이다. 봄의 시작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다. 모든 것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어둡고, 실내의 조명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3월 3일은 특별한 날이다. 봄의 시작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다.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한국의 여성들은 오랫동안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경험해왔습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은 여성들의 삶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재고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강력해졌으며, 다양한 사회적 운동을 통해 평등을 위한 투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인천문화재단 비온새라이브 포스터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

□ □□

□□ □□ □□□

□□ □□□□□□ □□□ C

□□ 2017.4.11(□) ~ 12(□) □□ 4□, 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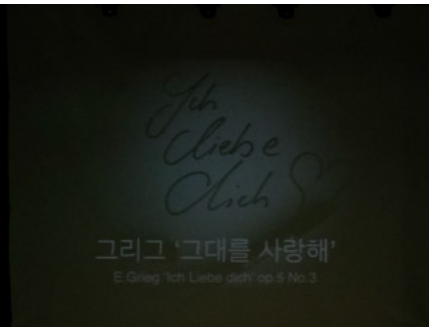
□□□ □□□□□□3.0 □□□□

2018 000000 00000000 00000

2018 00000 000000
@00000 0000(2018/04/07, 05/05, 06/09, 08/25)

0000003.0 0000 000

000000 0000 <0000 00 0 000000
with 0 0000>



트라이보울 시리즈
〈클래식 음악 속 문학이야기 with 엘 콰르텟〉















Voices of Spring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봄의 소리 왈츠







* 詳細 詳細 詳細 詳細 詳細 詳細 詳細.

日 時: 2018年 3月 28日(水) 20:00

場 所: 東京都 豊洲

出演・指揮: 東京都交響楽団, 東京都交響楽団管弦楽団, 東京都交響楽団, 東京都交響楽団

入 場 料: 東京都交響楽団3.0 東京都交響楽団